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청소년의 자존감과의 관계: 심리적·행동 통제의 매개효과

심 주 원

정 진 선[†]

홍익심리상담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경로에 초·중·고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행동통제를 매개변인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이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유의하지 않았고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나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가 사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이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성품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가족만이 자존감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여 가족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자존감

[†] 교신저자 : 정진선, 홍익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5-12

Tel : 02-3142-7425, E-mail : 3hmceneter@hanmail.net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접하는 첫 번째 타인으로 자녀의 행동, 정서, 성격, 신체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로 자식의 지각, 관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어머니가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에 따라 영향을 미치듯이 자녀의 자아개념은 대인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Verschueren, Doumen & Buyse, 2012).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이 관계가 확장되면서 점차 자기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적절한 자기 통제의 기회를 습득하고 진정한 자아상을 확립함으로써 자율적이 되고 새로운 자기 개념을 개발하면서 성인이 될 도전에 직면할 준비를 한다(유영숙, 하창순, 2016; 한승욱, 2010). 이때 부모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Coopersmith, 1981), 의미 있는 타인의 중요성은 개인이 취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아개념은 타인들의 실제적인 판단보다는 본인이 인식한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성된다(전하람, 김경근, 2006).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7청소년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13~19세)의 42.7%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원인으로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7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은 주로 학업성적, 사회생활, 친구관계, 가사일, 용돈사용, 귀가시간, 부모에

대한 불복종, 형제와의 갈등 등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가족문제와 관련되며(이주옥, 1993), 어머니의 권력상실과 청소년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이 증가함을 보고하며 적응상 곤란을 겪고 있다(김수연, 정문자, 1997).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적응의 요구를 받게 되며 적응의 영향요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표가 자존감이다(김희화, 1998). 개인이 가진 가치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환경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반응하므로 스스로가 무가치하다 느끼고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이 낮고 무기력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양경화, 2006; 유성경, 이소래, 1998).

자존감과 자아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판단개념이 아닌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기술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자존감과 자기개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보다 더 정서적인 행위이므로 자기개념을 자존감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아개념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측정이 가능한 자존감을 취급하고 있어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자아에 대한 평가적 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Berk, 1991; Brown & Alexander, 1991;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Wylie, 1979;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에서 재인용). 자존감은 자아(self), 자신(ego), 자아상(self-image),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정체(self-identity),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개념(self-concept), 현상적 자아(phenomenal self)등과

동의어들로(송인섭, 1998),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거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경화, 고진영,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자아개념을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자존감으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Rosenberg (1965)는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James(1983)는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성공과 실패를 하는 의존적 특성으로 자존감을 정의하였다(Crocker & Park, 2003). 또 자존감을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과 개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여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와 자기가치에 대한 태도의 합으로 간주하였다(Branden, 1969; 김민정, 2016에서 재인용). 자존감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언급한 ‘전반적(global) 자존감’과 달리 최근에는 삶의 특정영역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영역별(domain-specific) 자존감’의 중요성을 제안하여 측정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넘어 자존감의 변화가능성을 알려주는 안정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자존감이 상태적인 요소인가 특질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구분, 자존감 수반성과 영역별 자존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장재원, 신희천, 2011; Brown, 1994; Crocker & Wolfe, 2001; Leary & Baumeister, 2000; Leary & Downs, 1995). 최근 이러한 다양한 자존감의 측면들을 통합하고 서로간의 관계성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자존감에 근거요인이 있다는 견해로 자존감을 유능감 요인과 가치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하면서 자존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김민정, 2016; Mruk, 2006; Tafarodi & Ho, 2006).

유능감 근거 자존감은 개인이 자기 삶의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알 수 있으며(Mruk, 2006), 이수란,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 James(1983)는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성공에 따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자존감이라고 설명하였고, Crocker and Wolfe(2001)는 William James의 ‘중요성가설’에 근거에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상승, 보호, 유지하고자 하는데 특정 영역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달라질 때 자존감은 해당영역에 수반(contingent)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삶의 영역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총체적 자존감 점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자존감 수준과 그 결과가 나타내는 자존감의 취약성이나 불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rocker & Wolfe, 2001). 그러나 자존감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영역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족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이 갖춘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자존감을 형성(김민정, 2016; Pyszczynski, & Cox, 2004)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가치감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정서적 경험으로 수용되는지를 토대로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델이론(model theory)과 거울자아이론(looking glass self)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모델이론은 모델을 관찰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발달한다고 보았고(Bandura, 1977: 이미정, 1986에서 재인용), Cooley(1902)는 중요한 타자의 반응과 평가에 근거해 자존감이 형성되고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두 이론은 자존감 발달의 과정이 타인의 평가에 의한 것인지 모델에 대한 동일시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타자 혹은 동일시 모델로서 부모의 영향력을 중시하고 있다(이미정, 1986). 또한 생애 초기 관계경험과 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각이 자존감을 형성한다 하여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인 가치감이 자존감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김민정, 2016; Brown & Marshall, 2001). 서구에 비해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적 성향의 문화권에서 성장해온 우리는 자기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Markus, & Kitayama, 1991)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는 가치감이 자존감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능감에 대한 인식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인식이 자존감에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안신호, 박미영, 2005). 즉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가치감은 생애 초기에 접하게 되는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지각된 경험이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며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의 삶의 경험, 상호작용, 중요한 타인에 의한 기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

달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김민정(2016)은 모델이론과 거울자아이론에 기초한 가치감이 청소년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결국 유능감과 가치감은 자존감을 구성하는 두 요인인 동시에 자존감을 경험하는데 있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경험이나 삶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경험은 각각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근거가 된다. 두 요인들을 조합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기도 하며 자존감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김민정, 2016). 본 연구에서도 가치감과 유능감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에서 중요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자존감을 개인의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의 수준은 아동기에 높았다가 청소년기 동안 낮아지며 성인기에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을 보인다 하였다(장재원, 신희천, 2011; Robins & Trzesniewski, 2005). 이경화, 고진영(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 감소하다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뚜렷하게 증가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시기가 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아개념이 아동기

초기에 발달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단 성립되면 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Rosenberg(1979)는 “생애 초기에 자아상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자아가 급진적으로 변화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 자아관점을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마다 변화는 되지만 형성된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의 기초가 되며 그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타인들의 눈속에 비쳐진 것을 비교하는데 몰두하면서 자아를 발견해간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모방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학습해가며 자기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분화해 가는데 강력하고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존감과 자기가치에 수반한 개념들이 반응양식인 양육행동으로 드러나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자녀의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한다고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의 전반적인 자아개념도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하였다(김경혜, 공경혜, 2004). 또 어머니의 자아개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Felker, 1974: 김경혜, 공경혜, 2004에서 재인용). 즉 어머니가 자신의 자아개념에 따라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 대한 해석이 다르며 이것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존중되고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므로 아동의 내적 통제를 발달시키고 보다 분명한 자기정의를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김경혜, 공경혜, 2004; Coopersmith, 1981).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를 대할 때 보이는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국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형태로 표명되어지는 것을 의미(김재은, 1974; 이희란, 2012에서 재인용)하는 것으로 어머니 자신에게 형성된 자아개념에 따라 반응양식인 양육태도의 질도 결정 된다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에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꾸준히 있어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지지차원과 통제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통제차원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세분화하여 양육방식을 수용, 심리통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부모의 지지 행동은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 민감성 등과 같이 단일한 요소로 개념화되며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비교적 일관성 있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Barber, 1996). 반면 부모의 통제행동은 양육태도 초기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연구자들은 감독과 훈육, 강압적 지시와 요구, 제약과 처벌등과 같이 혼란된 구성요소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적이지 않아서 부모의 통제행동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였다(Barber, 1996; Barber, Stolz & Olsen, 2005). 이전의 연구들은 통제를 수용과 상반되는 양육방식으로 간주하였으나 Barber(1996)가 통제의 유형을 행동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게 되면서 이후 수용적 양육방식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혀 통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되었다(조성덕, 한세영, 2013; Calzada & Eyberg, 2002).

행동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규칙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생활태도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Barber, 1996; Pettit, et al., 2001)으로 필수적인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부모의 감독과 같은 행동 통제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 및 사회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규범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역할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최정아, 이해은, 2008; Steinberg, 1990)으로써,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해 주게 된다(Pettit et al., 2001). 자녀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도록 부모가 지지적이고 분명한 규칙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활동범위에 대해 이해하는 통제 양육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성장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등 행동을 보류하여 만족을 연기하고 지연하는 능력인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특히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방법에 따라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기통제력은 주로 자녀양육방법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남현미, 1999).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경험의 범위를 제한하여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남정민 외, 2014; Barber & Harmon, 2002).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과도한 참견, 수치심 유발이나 죄책감 유도, 애정철회, 무시하기 등과 같이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부정적인 방식을 의미한다(Barber, 1996). 즉 부모가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양육행동으로 행동적인 수단이 아닌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정서나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되기 쉬운 특징을 갖는 심리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Pettit et al., 2001).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에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 개념 형성, 자기가치감 형성,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고(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Barber et al., 2005), 자녀들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현화, 외현화 문제 행

동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행동, 심리, 정신 건강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이미정 외, 2011; 조윤희, 2016). 부모의 양육 방식은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등 심리적 통제를 가하여 청소년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며 청소년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아인식을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남정민 외, 2014). 즉 자녀들은 자신의 내적 자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며 자존감의 감소, 우울 및 불안, 의존성의 증가, 사회적 철수 등 앞으로의 계획과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많은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지도와 감독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3; 조윤희, 2016; Barber, Stolz, & Olsen, 2005). Barber, Olsen, and Shagle(1994)에 의하면 부모가 적당한 수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할수록 자녀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녀로 하여금 적응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통제하게 하고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행동통제에 대한 전혀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부모가 과하게 관리감독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할 때 자녀들은 자

신의 유능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유능감의 부족은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표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란, 2012; Pomerantz & Eaton,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가 자녀의 시각으로는 심리적인 통제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Smetana & Daddis, 2002).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있어 왔는데 양육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서구권에서 수행되었고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자율성을 지지하기보다 집단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하는 훈육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희란, 2012). 게다가 한국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김세영, 정태연, 2013)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여기고 자녀와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이를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는 서구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적,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통제적인 양육태도인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연구에서 행동통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양육’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로 나뉘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와 자녀의 자존감 사이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 보면 자녀가 성장을 하고 사회화되

면서 학교나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확장해 가지만 무엇보다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초기 아동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은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 자아개념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존감, 자기가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순히 자존감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와 청소년의 자존감과의 상관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이민식, 오경자, 2000)에서 외현화 문제와 달리 내면화 문제의 경우 부모가 보고한 행동이 자녀의 지각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ych와 Fincham(1990)은 부모가 실제로 보이는 행동보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가 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여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혜진, 도현심, 박보경,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스스로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지각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자기가치에 대한 개념이 안정되어 가는 청소년기인 초등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여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 내적인 특성인 자존감의 근거 영역이 자녀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머니의 심리적통제, 행동통제 양육이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자녀의 자존감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체계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인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 「대인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전수되는지 하위요인별 영향력의 중요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화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를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기가치를 형성하도록 안내하고 자녀의 양육과 지도에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여 바람직한 역할 인식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모 교육과 함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초·중·고 집단에서 주요변인들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부모 및 교사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자존감 추구의 목표를 위해 생활지도와 교육을 안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별로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각 하위요인, 청소년의 자존감,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 양육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남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700부 중 69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설문지를 제외한 63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281명(44.3%), 여학생은 353명(55.7%)으로 초등5, 6학년은 202명(31.9%), 중학생은 193명(30.4%), 고등학생은 239명(38.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측정 도구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척도(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 DoSEAS-K)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2013)가 개발한 4요인 29문항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사회적·객관적 능력(15문항; $\alpha=.90$: 외모, 지적능력/지식, 학업성취, 학력/학벌, 자신의 경제력, 사회적 평판 등), 긍정적 성품(7문항; $\alpha=.86$: 인품/성품, 긍정적 태도, 배려/존중, 가치관/윤리/도덕 등), 가족(3문항; $\alpha=.81$: 가족간의 사랑, 가정생활/분위기), 대인관계(4문항; $\alpha=.80$: 대인관계, 친구관계, 공동체내 관계 등)이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사회·객관적 능력은 .91, 긍정적 성품은 .83, 가족은 .70, 대인관계는 .80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

이 척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서 총 10문항의 4점 Likert형 척도이며 긍정문항 5문항(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과 부정 문항 5문항(나는 가끔씩 쓸모없는 것 같다)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병재(1974)가 번안하고 윤미숙(1999)의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척도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16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척도의 응답범위는 3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남정민(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응답범위를 1점부터 4점까지의 16문항 4점 Likert용 척도로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자기표현제한(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감정불인정(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신다), 비난(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시곤 한다), 죄책감유발(2문항: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애정철회(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불안정한 감정기복(2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 해주시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95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행동통제 척도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순화와 박성수(1983)가 Baumrind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발한 척도로 40문항 5점 Likert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반분신뢰도는 .8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영역으로 통제(숙제나 과제를 다 끝마쳐야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숙의 요구(내가 힘들어 하는 일이 있어도 내 능력껏 해결하도록 하셨다), 대화의 명료성(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권장해 주셨다), 양육(일을 잘 하면 칭찬하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영역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인들이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1.25~.71 범위내, 첨도는 -.61~1.29 범위로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Kline, 2005)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계산하여 신뢰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자존감과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각 하위 요인별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이고 측정오차를 줄여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Bandalos, 2002) 위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를 설정하였다. 우선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객관적 능력'(15문항), '긍정적 성품'(7문항) 그리고 '자존감'(10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세 요인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와 '가족'은 각 개별문항을 그대로 사용해 각각 4요인과 3요인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청소년의 자존감의 관계에서 심리적·행동통제가 매개하는지를 AMOS 20.0 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쳤으며(Anderson, Gerbing, 1988: 배병렬, 2011에서 재인용),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까지 모두 고려하는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TLI 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면 매우 좋음, .08은 양호, .10미만 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또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초·중·고 집단,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동일성과 구조모형 동일성도 검증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접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적인 경험적 표본추출을 하는 Bootstrapping의 경우 안정된 모수추정치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 95%에서 Bootstrapping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주요변인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주요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객관적 능력은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심리적 통제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성품은 대인관계, 가족, 자존감,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대인관계는 가족, 자존감,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자존감,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을, 자존감은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심리적 통제는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자존감, 행동통제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초·중·고 집단 간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 검증

초·중·고 세 집단 간에 주요변인들의 평

표 1. 주요변인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634)

	1-1	1-2	1-3	1-4	2	3	4
사회객관적능력 1-1	1						
긍정적성품 1-2	.210**	1					
대인관계 1-3	.338**	.482**	1				
가족 1-4	.263**	.463**	.502**	1			
자존감 2	-0.026	.247**	.194**	.285**	1		
심리통제 3	.203**	-.184**	-.133**	-.176**	-.324**	1	
행동통제 4	0.029	.409**	.381**	.386**	.343**	-.352**	1
평균	53.27	30.35	16.04	12.43	29.74	33.23	141.92
표준편차	9.89	3.75	2.89	2.14	5.23	9.05	18.92
왜도	-.31	-.77	-.51	-.79	-.07	.41	-.14
첨도	.35	1.08	-.06	.48	-.46	-.25	.08

*** : $p < .001$, ** : $p < .01$, * : $p < .05$

표 2. 초·중·고 집단 간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변수	초등 (n=202)		중등 (n=193)		고등 (n=239)		F(2,631)
	M	SD	M	SD	M	SD	
사회객관적능력	54.76 ^a	10.46	52.12 ^b	10.34	52.90 ^{ab}	8.85	3.73 [*]
긍정적성품	31.29 ^a	3.39	30.25 ^b	3.95	29.64 ^b	3.91	11.04 ^{***}
대인관계	16.56 ^a	2.76	15.74 ^b	2.84	15.85 ^b	2.99	4.96 ^{**}
가족	13.11 ^a	1.89	12.46 ^b	1.96	11.82 ^c	2.30	21.03 ^{***}
자존감	31.82 ^a	4.79	29.93 ^b	5.13	27.84 ^c	4.97	35.39 ^{***}
심리적통제	32.13 ^b	8.04	32.79 ^{ab}	9.41	34.51 ^a	9.43	4.14 [*]
행동통제	147.62 ^a	18.67	139.77 ^b	17.90	138.84 ^b	18.92	14.15 ^{***}

***: $p < .001$, **: $p < .01$, *: $p < .05$,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a > b > c$, ab는 a와도 차이 없음, b와도 차이 없음)

군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 초·중·고 청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인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과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에는 집단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변수가 평균 차이에 대한 F 값이 각각 3.73($p < .05$), 11.04($p < .001$), 4.96($p < .01$), 21.03($p < .001$), 4.14($p < .05$), 14.15($p < .001$) 35.39($p < .001$)로서 초·중·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 검정으로 사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통제’만이 고등학생집단의 평균이($M=34.51$)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존감’은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가족 구성원 간 사랑과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가족’에서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잠재변수들의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는 이유는 구조모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원인이 측정의 문제인지, 혹은 모형 설정의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배병렬, 2011).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수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X^2(df, p) = 1102.449(278, 000)$, $N=634$, $TLI=.896$, $CFI=.911$, $RMSEA(CI)=.068(.064, .073)$ 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각 요인계수의 크기를 살펴 보면 .083에서 .917로 나타났으며 요인계수의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N=634)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요인계수 (표준화 계수)	SE
사회객관적능력	S3 ← 사회객관적능력	1	.837	
	S2 ← 사회객관적능력	0.945 ^{***}	.873	0.036
	S1 ← 사회객관적능력	1.02 ^{***}	.898	0.038
긍정적 성품	P3 ← 긍정적성품	1	.832	
	P2 ← 긍정적성품	0.883 ^{***}	.714	0.05
	P1 ← 긍정적성품	0.936 ^{***}	.764	0.05
가족의 지지	F3 ← 가족의지지	1	.912	
	F2 ← 가족의지지	0.912 ^{***}	.829	0.039
	F1 ← 가족의지지	0.556 ^{***}	.373	0.06
대인관계	R3 ← 대인관계	1	.556	
	R2 ← 대인관계	0.988 ^{***}	.847	0.084
	R1 ← 대인관계	1.184 ^{***}	.833	0.082
	R4 ← 대인관계	1.137 ^{***}	.635	0.084
행동 통제	성숙의 요구 ← 행동통제	1	.613	
	대화의 명료성 ← 행동통제	2.123 ^{***}	.938	0.119
	양육 ← 행동통제	2.048 ^{***}	.917	0.116
	통제 ← 행동통제	0.144	.083	0.071
심리적 통제	자기표현제한 ← 심리적통제	1	.748	
	감정불인정 ← 심리적통제	0.540 ^{***}	.446	0.05
	비난 ← 심리적통제	1.174 ^{***}	.840	0.056
	죄책감유발 ← 심리적통제	0.509 ^{***}	.501	0.042
	애정 철회 ← 심리적통제	1.203 ^{***}	.813	0.059
	불안정한 감정 ← 심리적통제	0.908 ^{***}	.846	0.043
자존감	E1 ← 자존감	1	.888	
	E2 ← 자존감	0.786 ^{***}	.841	0.03
	E3 ← 자존감	0.794 ^{***}	.861	0.029

$X^2(df; p)=1102.449(278, 000)$ TLI=.896 CFI=.911 RMSEA(CI)=.068 (.064, .073)

*** : $p < .001$

크기를 중심으로 요인을 채택하는 기준은 보수적인 기준에서 .60이나 .70 이상이고, 이보다 관대한 기준으로는 .30 이상이면 받아들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Field, 2009). 따라서 행동 통제의 하위요인 중 『통제』가 표준화계수 .083으로 행동 통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표 3과 같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5개의 측정변수로 7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이르는 과정을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별로 자존감에 이르는 유의미한 직접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df, p) = 774.184(256, .000)$, $N = 634$, $TLI = .933$, $CFI = .943$, $SEA(CI) = .057(.052, .061)$ 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검증 결과, 표 4의 경로계수와 그림 1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83, p < .001$), 긍정적 성품은 심리통제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beta = -.136, p < .05$), 가족은 심리적 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82, p < .001$) 심리적 통제는 자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beta = -.220, p < .001$). 그러나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고($C.R. = -0.174$).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모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심리적통제 ← 사회객관적능력	0.698	.114	6.102	.283***
심리적통제 ← 긍정적성품	-0.417	.191	-2.187	-.136*
심리적통제 ← 가족	-0.608	.150	-4.045	-.282***
심리적통제 ← 대인관계	-0.034	.196	-.174	-.013
행동통제 ← 사회객관적능력	-1.970	.424	-4.648	-.192***
행동통제 ← 긍정적성품	2.798	.729	3.839	.220***
행동통제 ← 가족	2.401	.567	4.231	.268**
행동통제 ← 대인관계	1.887	.754	2.502	.170*
자존감 ← 심리적통제	-0.270	.065	-4.130	-.220***
자존감 ← 행동통제	0.046	.017	2.711	.154***
자존감 ← 가족	0.646	.125	5.178	.244***

***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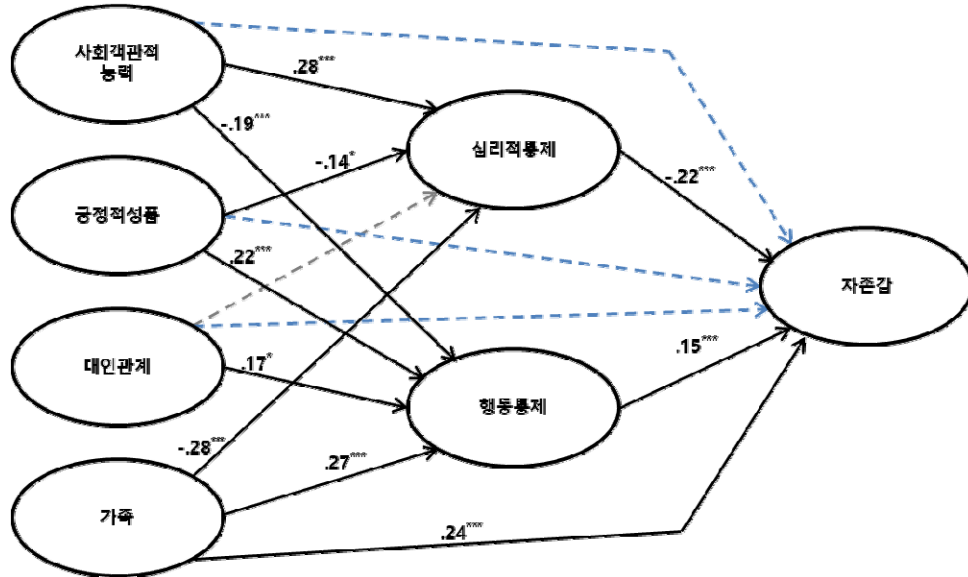


그림 1. 구조 모형

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사회·객관적 능력이 행동통제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92, p < .001$), 긍정적 성품은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beta = .220, p < .001$), 가족과 대인관계는 각각 행동통제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8, p < .001$; $\beta = .170, p < .05$). 행동통제는 자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beta = .154, p < .001$)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가족만 직접경로 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244, p < .001$). 이는 어머니가 사회·객관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동통제의 양육태도를 줄이고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또 어머니가 긍정적 성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심리적 통제양육태도를 줄이고 행동통제의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높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가 자존감 평가에서 가

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앞서 확인한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초·중·고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집단을 나누어 동시에 투입하는 다집단 인과모형 분석으로, 각 집단의 경로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다음 기저모형과 동일화 제약 모형 사이에 χ^2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두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홍세희, 2007).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초·중·고 집단 간에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과 이러한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간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완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차이가 $53.963(df=36)$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측

표 5. 초·중·고 집단 간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Model	χ^2	df	TLI	CFI	RMSEA	차이값	
기저모형	1504.523	771	0.906	0.919	0.039	$\Delta\chi^2$	df
완전측정동일성	1558.486	807	0.908	0.917	0.038	53.963*	36
부분측정동일성	1543.794	799	0.907	0.918	0.038	39.271	28
구조동일성	1579.182	827	0.91	0.917	0.038	35.388	28

적동일성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초·중·고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계수인 심리적통제의 하위요인 중, 비난→a3, 죄책감유발→a4, 애정철회→a5에 대한 제약을 풀고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χ^2 차이가 39.271 (df=28)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인들간의 경로 계수까지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을 측정모형 및 경로구조의 동일성만 가정한 모형과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홍세희, 2007).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차이가 35.388(df=28)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TLI와 RMSEA 값을 비교했을 때 경로계수의 동일화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모형이 초·중·고 집단에 따라 모형의 차이가 없이 모두 적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은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92, $p<.05$; .064, $p<.05$; .103, $p<.05$). 그러나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통제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존감에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객관적 능력이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사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이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성품이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긍정적 성품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가족만이 자존감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244, $p<.001$)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가족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3, $p<.05$).

표 6. 부스트랩 절차를 통한 직접·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사회적관계능력 → 심리적통제	.283			
→ 행동통제	-.192			
사회적관계능력 → 자존감	-	-.092*	-.133	-.054
긍정적성품 → 심리적통제	-.136			
→ 행동통제	.220			
긍정적성품 → 자존감	-	.064*	.018	.117
가족 → 심리적통제	-.283			
→ 행동통제	.268			
가족 → 자존감	.244***	.103*	.052	.174
대인관계 → 심리적통제	-.013			
→ 행동통제	.170			
대인관계 → 자존감	-	-	-.025	.089

*: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먼저 초·중·고 청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인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과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에 집단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변수가 평균 차이에서 초·중·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비교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초등학교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고등집단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성인의 양육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청소년의 욕구와 상충되어 청소년 스스로 성인의 수용과 애정이 감소한다고 인식한다(김희화, 1998)는 연구의 견해를 지지한다. 심리적 통제에서만 고등학생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다집단 분석에서도 심리적통제의 하위요인에서 초·중·고 집단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들에게 까지도 지각되었고(신희수, 안명희 2013), 학업적 성패가 결정되는 평가의 시기가 다가오는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증가하고 발달 단계상 자율성에 대한 욕구

는 더욱 강해져서 자녀가 더 높은 심리적 적응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존감은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증가속 구성원 간 사랑과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가족'에서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각 하위 요인인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 대인관계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과 심리적 통제의 표준화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며, '사회·객관적 능력'이 심리적 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 직업, 경제력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객관적 능력'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자신이 학력, 직업, 경제력, 성취, 사회적 평판 등의 외적인 유능감 요인에 자존감의 가치를 둘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와 성공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적인 양육 태도인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은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도에 맞추도록 하거나 죄의식을 조장하고 사랑의 철회, 불안을

심어주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부모와의 정서적 균형을 조정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고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 거부, 감정적 처벌, 일관성 없는 정서적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Barber & Harmon, 2002). 이렇게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은 발달단계상 자율성과 정체성 추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Nelson & Crick, 2002), 부모 자녀관계의 만족도와 자녀의 외로움 및 분노(안명희, 2014)와 관련되며 자녀의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내재적 문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신희수, 2012). 또한 자녀의 외적인 성취와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자녀-수반 가치감이 부정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할 때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설경옥 외2,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유능감을 측정하는 '사회·객관적 능력'이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긍정적 성품'과 '가족'은 심리적 통제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성품'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개인이 내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배려와 존중, 노력, 가치관, 윤리, 도덕성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은 가족애와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가치감에 근거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을 감소시키는 부적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의 경로만이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친구나 공동체내, 이성간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가치가 청소년

년 자녀에게 대인관계로 인식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통해 어머니-자녀 간 상호관계적 특성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객관적 능력’은 행동통제를 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긍정적 성품’, ‘가족’, ‘대인관계’는 행동통제에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가족’이 행동통제에 높은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존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의 행동 통제는 자녀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통제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인 통제를 하는 양육행동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의식,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태도와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교차하면서(Bloom, 1989; 정현희, 오미경, 1993에서 재인용) 일생동안의 경험에 의해 형성, 발전된다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 중 특히 의식구조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의식, 부모의 자녀 양육, 가치관 등의 과정적 요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역할과 문화적 수준 등 가정의 구조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정문자, 정현숙, 1994) 본 연구결과의 ‘사회·객관적 능력’이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보다 어머니의 가족애나 가정의 분위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대인관계’, ‘긍정적 성품’과 같은 과정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 외에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가족’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머니가 가족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가족 간에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자녀가 지각할 때 자녀 자신도 가정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이런 수용적인 가족관계는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존감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히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Papini & Roggman, 199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국인에게 가족구성원 자체, 가족 간 사랑과 같은 가족요인은 자신의 가치감을 수반하는 주요 영역으로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이 더 보편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한 개인이 자기개념 형성에 있어 가까운 타인을 포함하는 일은 일반적이며 어머니-자녀와 같은 관계에서 어머니나 자녀 모두 자기개념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설경옥 외 2, 2015; Zhu, Zhang, Fan, & Han, 2007).

간접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먼저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사회·객관적 능력’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정적, 행동통제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존감에는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부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학력, 직업, 경제력, 성취,

사회적 평판 등의 외적인 요인에 자존감의 가치를 들수록 양육 방식으로 심리적 통제가 정적으로 나타났고 행동통제 방식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 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긍정적 성품’은 심리적 통제에 부적, 행동 통제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존감에는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정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노력, 가치관, 윤리, 도덕성 같은 어머니의 내적인 기준이 자존감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방식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의사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통제 양육방식을 더 높게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어머니의 ‘긍정적 성품’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가족’은 다른 요인에 비해 심리적 통제에 부적, 행동 통제에 정적으로 큰 효과를 미쳤고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가족’만이 자존감에 정적으로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간접효과 또한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 중 가족애와 가정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방식을 낮추고 행동 통제를 통해 자녀에게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지한다(조성덕, 한세영, 2013; Gomez, Gomez, Demello & Tallent, 2001). 또 어머니가 행동통제 방식으로 양육할 때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 있

게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여(이미정 외, 2011)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가족주의적 성향의 문화권에서 성장해 온 한국인들에게 ‘가족’요인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따뜻한 가족애와 가정 분위기를 자존감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꼽았고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삶을 크게 좌우 할 수 있으며(이동귀 외, 2013), 부모와 관계에서 경험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81)고 언급한 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대인관계’요인은 행동통제 양육방식을 .170($p < .05$)으로 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통제에는 유효한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대인관계 요인을 자존감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길수록 개인적 자아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타인의 인정, 지지와 격려를 중요시 하는 관계적 자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에게 규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양육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타인의 평가 같은 외부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어머니의 가치는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객관적 능력’이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가 ‘사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긍정적 성품’과 ‘가족’에 대한 중요도는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성품’이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긍정적 성품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가족’만이 자녀의 자존감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가족’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대인관계’ 요인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통제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그러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자기가치수반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로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긍정적 성품’같은 요인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이 자녀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요인이 측정하는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가족 안에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이 자존감 형성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지표인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

기 위해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상담 시에 가족 간의 상호작용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탐색과 대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낮은 가정적 자존감은 부모와의 솔직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이 증대 될 때 높아 질 수 있으므로(김희화, 1998)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과 감정까지도 드러내고 수용 받는 경험이나 온전한 돌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모, 자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소재 7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자존감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의 요인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청소년기에는 친구관련, 교우친밀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동통제의 하위요인 중 통제의 표준화계수 점수가 낮아 행동통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시켰지만 연구대상을 달리한 추가연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이 통제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적응의 중요한 예측요인인 자존감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부모, 교사,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혜, 공경혜 (200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1(1), 113-126
- 김민정 (2016). 자존감 2요인 모델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3), 411-434.
- 김세영, 정태연 (2013).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1), 149-149.
- 김수연, 정문자 (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 35(3), 181-192.
- 김순화, 박성수 (1983).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 양식의 지각과 자아정체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4(1), 65-74.
- 김혜진, 도현심, 박보경 (2017).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자기분화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후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연구*, 38(1), 233-249.
-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남정민 (2016).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심리적 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녀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67.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7(1), 25-27.
-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58.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

- 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양경화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 (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계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유영숙, 하창순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와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197-216.
- 윤미숙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고진영 (2003). 유아기에서 성인초기에 이르는 자아개념의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성격논총, 34(1), 619-694.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일반, 32(1), 271-298.
- 이미정 (1986).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9(4), 727-745.
- 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55-75.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란 (2012). 부모의 자율성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3(3), 635-654.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9-129.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 45(6), 101-111.
- 전하람, 김경근 (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분석: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연구, 16(4), 185-206.
- 정문자, 정현숙 (1994).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과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3-19.
- 정현희, 오미경 (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1(1), 85-95.
- 조성덕, 한세영 (2013). 어머니의 자존감과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99-117.
- 조윤희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감독 및 심리적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 향: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05-139.
- 최정아, 이혜은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의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 통계청 (2017). 2017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
- 한승욱 (2010). 부모양육과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미간행.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70(Serial NO. 282).
- Brown, J. D. (1994, October). *Self-esteem: It's not what you think*.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Lake Tahoe, NV.
- Brown, J. D., & Marshall, A. M. (2001). Self-esteem and emotion: Some thoughts about feel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575-584.
- Cal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김문조 외 8인 공역(2004). *사회학이론의 형성*. 서울: 일신사.
- Coopersmith, S. (1981).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Crocker, J., &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elf-worth. In M. R. Leary, J. P.

-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91-3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Field, A. (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Introducing Statistical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Gomez, R., Gomez, A., Demello, L., & Tallent, R. (2001). Perceived maternal control and support: Effects on hostile biase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4), 513-522.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James, W. (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123-144). New York: Plenum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3th ed)*. New York: springer.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Michael, M.,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Pomerantz, E. M., & Eaton, M. M. (200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control: "They love me. But they make me feel in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1), 140-167.
- Pyszczynski, T., & Cox, C. (2004). Can we really

- do without self-esteem?: Comment on Crocker and Park.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25-429.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255-276).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Tafarodi, R. W., & Ho, C., (2006). Moral value, agency, and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110-118). New York: Psychology Press.
- Verschueren, K., Doumen, S., & Buyse, E. (2012). Relationships with mother, teacher, and peers: Unique and joint effects on young children's self-concept. *Attachment Human Development*, 14(3), 233-248. doi:10.1080/14616734.2012.672263
- Zhu, Y., Zhang, L., Fan, J., & Han, S. (2007). Neural basis of cultural influence on self-representation. *Neuro Image*, 34(3), 1310-1316.

원고접수일 : 2017. 11. 19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1. 17

게재결정일 : 2018. 01. 2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Worth Appraisal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 Behavior Control

Joowon Shim

Jinsun Jung

Hongik Psychology Counseling Lab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importance of maternal self-worth domains that affect adolescent self-esteem through psychological/behavior control. In the evaluation of self-esteem domains, the following sub-items effected adolescent self-esteem through psychological behavior control: 'Social/Objective ability', 'Positive character', and 'Fami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a static effect on behavior control but did not affect psychological control or self-esteem. 'Family' exclusively directly affected self-esteem, so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psychological/behavior control is partially mediated by family and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potential follow 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esteem, domains,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control